

시·도지사 의지 결실...통합연구원 연내 출범 남도학속 건립·무안공항 활성화 등 가속도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 과제로 설정한 18개 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거론됐던 광주·전남 통합발전연구원이 연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전남도의회의와 사전 협의의 미흡, 연구원 기금 격차 문제가 이어 이전 부지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빛가람 혁신도시, 호남고속철도, 광역관광체계 구축 등 그동안 제기된 현안에서 줄곧 '상생 정신'을 강조했던 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원 통합 이외의 상생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광주시와 전남도는 28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합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통합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연구원 출범을 서두르기보다는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실상부한 통합연구원을 조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따라 이른바 하반기, 늦어지면 연말에 통합연구원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는 물리적인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

통합 조례안에 따르면 통합연구원 이사회는 당원직 이사(광주시·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 전남도지사·군수협의회장, 원장)와 시·도가 같은 수로 추천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선임직 이사로 구성된다.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연구수행자는 시·도 간 이해관계가

이낙연 전남지사는 27일 무안군청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서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고속철도 승객은 늘어나는 데 비해 비행기 승객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인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호남고속철도(1단계) 개통 후 광주공항 이용객이 감소하게 되면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지(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달라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합의와 남의 상생과제 전망

협의체 구성, 연구과제 선정·연구원 자율성 최대한 보장 상생과제 추진 실무 기획단·갈등 조정기구 설립 목소리



윤장현 광주시장(오른쪽)과 이낙연 전남지사(왼쪽)가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이전부지를 나누시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두기로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상충되는 연구결과물도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도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하게

된다. 연구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무안공항 활성화 등 지속 논의=운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전 14개 상생발전 의제를 추진하기로 합

의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순환도로(제3순환선) 건설, 남도방문의 해 추진 등 4개를 추가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정책 수립,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속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등이다.

또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양 시·도 발전연구원 역할 제고, 에너지밸리 추진, 2015 하계U대회 성공 개최 협력,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 설립, 광주전남 해외 자매도시 교류방문 등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무안공항 활성화, 에너지밸리 등이 민감한 현안으로 분류된다. 제2남도학속 건립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은 무난히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생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무기획단 운영이나 갈등 조정기구 설립 등 좀 더 적극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자문위원 20명으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상반계회의를 가졌으나 광주시와 전남도를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를 하기에는 미흡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최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 비전 및 전략 수립 워크숍에서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에 이어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사업 및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이임식을 마친 뒤 총리실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정부 서울청사를 떠나던 도중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대국민 사과 안할 듯

여야 요구 외면 '성완중 파문' 유감 표명 예상

4·29 재보선 의식 총리 사표는 발빠른 수리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모처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만성피로에 따른 위경련과 인두염 진단을 받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에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당 내에서조차 '성완중 파문'에 대한 대국민 사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체적 사과는 하지 않고 유감 표명의 언급을 할 것으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 총리 사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오늘 새벽 9박12일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몸 컨디션과 관련한 검진을 받았다"며 "과로에 의한 만성 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으로 인한 복통이 주증상이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총리의 사표 수리가 늦어지는 등 '성완중 파문' 뒷수습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후 전격적으로 이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여론 악화로 인한 재보선 패배를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때문에 28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성완중 파문'과 관련된 추가적 언급도 미뤄지게 됐다. 애초 여론에선 박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사과나 유감 메시지를 전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도 여야 정치권에 일고 있는 대국민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와대 관계자들은 이 총리 의혹과 해명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이 빚어지면서 대국민 불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자로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전남 김무성 대표가 "검찰 수사 진행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엔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직접 해주리라 기대한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박진표기자 jkpark@

"광주공항 이전, 기다리면 답 나올 것"

이낙연 전남지사 "호남고속철 개통 항공 승객 줄어들어"

고 막 소리 지르면(광주에서) 긴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우 및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매듭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며 "공항 활성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풀어갈 문제로, 대한민국 지도를 볼 때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다면 바로 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

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무안공항의 호남고속철도 경우 문제는, 이미 대통령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역의 입장에서 이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참고로 어제 대전시청에서 호남·충청 7개 시도지사가 회동해 무안공항을 공유하는 2단계 사업 조기 착공

을 협의 사항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중앙부처 인사 몇 분이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등의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이라 말 했는데 이는 제 생각과 일치한다"며 "아직 국가 재원의 문제가 있고, 민간기업 등의 관심도 큰 편이 되지않 시간도 걸리므로, 긴 호흡으로 발전 전략을 짜면서 확실히 준비해 활기 넘치는 무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제8회 하나투어 웨딩&허니문 박람회

2015. 5. 9(토) ~ 10(일) 11:00~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228-1199**

사전 예약 시, 다양한 특전 제공
허니문 상품 예약 시 최대 140만원 혜택 제공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1만원 권 증정

하나허니문 박람회 추천 상품

클래식 하와이 (오하우) 6일, 7일

총상품가 2,620,000원~
현지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4월 ~ 6월 토/일/월
특 전 : 동반자 or 사전예약 할인, 쌍당 최대 40만원 할인
무료 룸 업그레이드(파살 오션뷰 → 오션프론트)
몰리네시안 민속춤 및 와이키펠레 프리미엄 아울렛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함.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료,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 ■선박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 ■부득이한 사정에서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측의 사전 통보를 받으십시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실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상여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만 접수 Tel 1577-1233ARS (내선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재금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과 비 선택 시 대체할 것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을 참조하십시오. ■여행 유의 사항 1.여행 전 2.여행 중 3.여행 후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